

호랑이의 기상으로 불법홍포하라

각 종단 시무식 갖고 새해 첫 업무 들어가... 각 단체도 4일 시무식

2010 새해를 맞아 불교계는 각 기관·단체별로 시무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 교역직 스님 및 종무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의 종단기조를 밝히는 시무식을 봉행했다.

자승 스님은 "2009년 10월 22일 출범한 제33대 집행부는 종도 여망과 불교사적 책임을 안고 있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종단을 증중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시대 증생들의 갈등과 괴로움을 해결해 나아가 한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도 1월 5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총무원장 인공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덕화 스님 등 종신 스님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 시무식을 봉행하고 종무를 시작했다.

인공 스님은 "대승보살의 대원력처럼 경인년은 모두가 주인이 되어 호랑이처럼 포효하는 기상으로 원대한 희망과 포부를 힘차게 펼쳐가자"고 기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구정을 기점으로 시무식과 신년하례법회를 병행할 예정으로 1월 1일에는 영천 봉동사 백만덕 입재법회를, 1월 5일



1월 5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태고종 시무식.

한편, 태고종은 12일 순천 선암사에서 종정 해초 스님에게 신년하례를 올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1월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불법홍포를 발원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에는 금강대학 신년하례법회 등 산하기관 신년법회 등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정산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자리이타의 사상을 비전으로 경인년에는 세상의 리더가 돼 법의 우렁찬 자후를 떨치자"고 말했다.

진각종(총무원장 혜정)은 참회 실천과 사회통합을 최고 서원덕목으로 정하고 1월 4~10일 새해 대서원 불공 입재로 신년 불사를 시작했다. 진각종 서원덕목은 △평화공존 △국민생활안정 △사회통합 △도제양성 △참회실천 등이다.

혜정 정사는 "참회와 서원 그리고 수행과 회향으로 복지구축(福祉具足)한 한 해가 되길 서원한다"고 기원했다.

이밖에 불교 시민환경단체와 신행단체, 언론사 등도 4일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국민의 은덕에 감사합니다”

9일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 봉행

불교계를 비롯한 4대 종단이 참여한 가운데 1월 9일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이 봉행됐다.

‘용산참사 쉼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는 장례식 당일인 9일 오전 9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발인식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장종단공원 방향으로 운구행렬을 진행해 퇴계로를 거쳐 서울역 광장에 도착한 뒤 오후 12시에 영결식을 열고, 오후 3시에는 용산현장에서 노제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에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하관식을 진행했다. 장례식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 청화 스님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맡고,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고문을 맡는 등 4대 종단 성직자들과 정치권, 시민사회 인사들이 동참했다.

장례위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시의 탄압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마침내 책임을 시인해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 덕이다”며 “지난 1년간 억울하게 숨져간 고인들을 추모하고 애도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종교계와 시민들은 추모기간(5~9일) 중 용산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식을 가졌다. 박선주 기자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 논의해

조계종 총무원 본사주지 간담회서... 12일 계획 공개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 발표가 1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7일 합천 해인사에서 총무원·교구본사 주지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발전계획 발표에 앞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각 지역불교계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번 간담회는 4개년 발전계획의 △3대 기초 △10대 핵심과제 △23대 주요과제 안을 보고드리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며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를 떠나 종단 백년대계를

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견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말했다.

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범타 스님(불국사 주지)은 “총무원장 스님 이하 33대 집행부 스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한 지역불교계는 종단 정책을 따라 불교증흥에 앞장 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종 확정된 발전계획은 1월 12일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개된다. 제33대 집행부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구급 23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각 세부 핵심사업 윤곽을 도출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수석사주지 용산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등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22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총무원장 영당 스님 등 제33대 집행부 교역직 스님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노덕현 기자

“다름 인정하고 공존해야 해”

불교환경연대, 지을 스님과 낙동강 답사

“요즘은 다름을 인정하라는 말이 크게 들립니다. 공존해야 하는 거지요. 공존하지 않을 수 없어요. 풀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1월 7~8일 지을 스님(사진)과 함께 낙동강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불교환경연대 교수와 전문가들은 이날 동안 지을 스님과 함께 상주보와 낙담보, 강창보와 담보, 함안보 등이 들어설 낙동강유역에서 현장 체험 및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불교계 4대강 심포지엄(2월 예정)을 개최하기 앞서 보다 나은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었다.

7일 아침부터 동행한 지을 스님은 “강을 순례하다보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광경이 많은데 이 모습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하지만 우리의 외침이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절대 안 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정부가 요즘 들어서 끊임없이 공부를 시킨다. 강으로 오게 해 강의 소리를 듣고, 강에서 들는 소리를 전하게 하려고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한다”며 “우리가 생명들과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4대강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강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강을 먼저 알아야 한다. 답사를 통해 기획·분과위원들의 분과주제별 방향 설정을 도모하고 전체위원의 집중된 팀웍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축비와 묵락

불자들이여! 본분사 밝히자

구급 28일, 북한산 회룡사에서 뜻깊은 법회가 열렸다. 탄허 스님이 토를 단 <대방광불화엄경> 집안식이 화엄학연구원장 각성 스님이 법주로 봉행된 것. 이날 회룡사 주지 성건 스님과 교림출판사 서우담 대표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해외 50여 개국 280여 대학도서관과 국내 600여 도서관에 이 경을 법보시하겠다고 발원해 새해 벽두부터 한국불교 세계화의 청신호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 1번지 조

계사가 스님과 지성인 불자들, 불교인론들이 잇따라 문제제기 하고 있는 ‘천도재의 상업화’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 제1 교구본사이자 외국인들의 필수방문 코스가 된 성지가 49재를 일곱 번 지내는 343일 천도재 등으로 ‘기복불교의 온상’이란 비판에 직면한 것. 만성 부채 해결과 성역화 불사를 위한 재원 마련이란 명분을 주장하지만, 선종 본질의 사격에 걸맞는 수행풍토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해를 맞으며 두 사찰의 ‘부처님 일’(佛事)을 볼 때, 우리 부처님 제자들의 본분사(本分事)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된다.

경인년에는 모든 불자들이 백호의 기상으로 본분사를 밝히는 데 매진하길 기원한다.

본분사란 사람의 본래 성품인 불성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본분에 들어가게 하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의 불사이다. 한암 스님은 출가 사문의 본분사를 ‘참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의 5대 강목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마음 밝히는 본분사를 망각한다면 사찰도, 불교단체도, 불교인론도 존재 이유가 없다.

조주 선사(만약 사람들의 근기와 수준에 맞추어서 이치를 이야기하자면 불교에는 3승 12분교(三乘十二分教)가 있다. 그러나 나는 다만 본분사로서 사람들을 만날 뿐이다”라고 했다.

본분사란 사람의 본래 성품인 불성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com



보광·정산·세영 스님 ‘선출’

조계종 선관위, 8일 제14대 직능직 의원으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1월 8일 직능직 회의의 원 행정분야에 세영 스님(여주 신륵사 주지), 문화 분야에 정산 스님(부산 동명불원 주지), 선원 분야에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보광 스님은 1951년 출생,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1970년 분황사에서 동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대성사 주지와 대각회 이사를 거

쳐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와 정토사 주지를 맡고 있다. 재적본사는 조계사다.

정산 스님은 1958년 출생, 양익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1981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개운사, 모은암 주지, 총무원 호법부 정보국장, 범어사 사회국장,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명불원 주지로 재적본사는 범어사다.

세영 스님은 1955년 출생해 정무



보광 스님, 정산 스님, 세영 스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6년 용주사에서 정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제11·12대 중앙총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주 신륵사 주지로 있다. 재적본사는 용주사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능 대표 출원분야의 진원 스님이 1월 7일 사퇴함에 따라 보광선출을 다시 치를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업장소멸 법륵대(윤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륵대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데 줄이 연이어 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략에 기록된 개개인의 금강경 묵은 빛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숫자로 봉장하여 법륵대를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 법륵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상감청자 법륵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륵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계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